국내
마감시황

2025.9.16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코스피, 11거래일 연속 상승

외국인, 9월 한 달간 코스피 누적 6.6조원 순매수
대형주 강세가 지수 상승 견인

주요지표 일간 변동

KOSPI	KOSDAQ	KOSPI200
3,449.62pt (+1.24%)	851.84pt (-0.10%)	472.85pt (+1.76%)
달러-원 환율	**韓 10년물 국채 금리**	**S&P500 선물**
1,379.20 원 (-7.4 원)	2.8000% (-2.1bp)	6,685.75pt (+0.10%)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주요 수급 동향

	KOSPI (억)	KOSDAQ (억)	KOSPI200 선물 (억)
개인	-17,639 억	+2,718 억	+517 억
외국인	+17,094 억	-2,146 억	+3,693 억
기관	+785 억	-451 억	-4,065 억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KEY DRIVER

- 금일 코스피는 11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연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정책 불확실성 해소가 국내 증시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은 바이오에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했습니다. 이날 KOSPI는 1.24% 올랐고, KOSDAQ은 0.10% 내렸습니다.
- 외국인과 기관은 KOSPI를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KOSPI에서 전기·전자와 기계·장비 업종을 매수했고, 금융과 IT서비스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한편, 기관은 KOSPI에서 전기·전자와 금융 업종을 매수했고, 화학과 제약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 업종별로 살펴보면 3분기 실적 상향 가능성과 레거시 반도체의 턴어라운드 기대감에 반도체주가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영·미간 에너지 안보 강화와 원전 파트너십을 체결 소식에 국내 원전주가 올랐습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자 방산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최근 상승세를 이어오던 음식료에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 밖에 2차전지, 금융주가 내렸습니다.
- 주요 종목 중에선 두산에너빌리티(+7.65%), 한화에어로스페이스(+5.58%), SK하이닉스(+5.14%)가 올랐고, 휴젤(-5.21%), 농심(-4.11%), LG에너지솔루션(-1.69%)이 내렸습니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